

과잉설비 처리를 서두르는 일본 소재업계

- 일본의 소재 관련 업체들이 구조적인 내수 감소와 아시아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과잉설비 처리를 서두르고 있음
- 동종 업계의 합병 등 사업재편을 통하여 과잉설비를 해소하고 기술력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음

□ 아시아 업체들의 증산과 일본 업계의 과잉설비 처리

- 일본의 소재 관련 대기업들이 에틸렌 제조장치 및 고로 등 과잉설비의 가동중단에 들어감
- 구조적인 내수 감소와 아시아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잉설비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임

□ 에틸렌 분야

- 미쓰이화학은 일본의 에틸렌생산능력은 연간 500만 톤으로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일본의 국내 생산능력은 760만 톤인데 2012년 생산량으로 볼 때 20% 이상 과잉
- 국내 생산의 약 30%를 차지하는 수출은 2009년 대비 30% 이상 감소
- 이 같은 현상은 아시아 지역의 신규 설비가동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는데, 미쓰이 측은 수출제로 상황까지 상정하여 내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능력을 줄인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음
- 8월에는 미쓰비시화학과 아사히카세이케미컬즈가 오카야마현에서 공동 생산하는 설비를 중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, 미쓰비시화학의 2기를 포함, 2014년 이후 3기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
- 관련 업계에서는 추가로 2~3기를 더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으나 각사들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

- 대다수의 기업들은 에틸렌이 콤비나트의 핵심이라서 에틸렌으로 수지원료 등을 생산하는 수요업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단히 중단시킬 수 없다는 입장임

□ 철강 분야

- 철강 분야는 신일철주금과 고베제강이 고로 중단을 결정
- 고베제강은 최근 엔저가 순풍으로 작용하고는 있으나 수요증가는 어디까지나 일과성이라고 보고 있음
- 더욱이 수요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2012년 일본 국내 강재소비량은 6,400만 톤으로 2007년 대비 20%나 감소하여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
- 일본 국내 조강생산량은 2102년에 1억 700만 톤으로 피크였던 2007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1,500만 톤 정도 과잉
- 특히 일본 국내생산의 25%를 차지하는 철근 등 건설용 강재가 주력인 전로업계의 과잉설비가 두드러짐
- 신일철주금의 계열 업체인 합동제철 사장은 업계의 과잉설비가 40%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
- 아시아지역의 공급과잉은 향후 2~3년간 심각할 것으로 전망
- 철강 분야는 2015년 이후 한국과 중국 업체들이 최신 제철소를 가동할 예정
- 중국은 현재도 2억 톤에 가까운 과잉설비를 안고 있으며 이르면 2015년에 건설투자가 피크에 달할 것으로 전망
- 중국의 철근 생산량은 일본의 20배인 연간 1억 5천만 톤으로, 현재도 10~20% 씩 중국제품이 대량 유입되는 경우 일본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음

□ 화학 분야

- 화학도 2016년 전후가 고비
- 미국은 저렴한 셰일가스를 사용하는 에틸렌 설비를 가동
- 아시아 지역의 에틸렌 생산능력도 2017년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2011년 대비 50%나 증가할 전망으로 시세하락 우려가 큼

- 이에 따라 내수의 15%정도인 일본의 수입량은 대폭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관측

□ 과잉공급으로 인한 손실

- 일본의 소재업계에서는 공급과잉으로 이익이 단숨에 사라졌다는 평가
 - 우베코산(宇部興産)의 간판제품인 나일론 원료 부문은 2013년도에 전기대비 141억 엔 정도 이익이 감소되었는데 중국의 생산증가로 수출가격이 30%정도 하락했기 때문
 - 우베코산(宇部興産)은 2014년 봄 사카이공장의 설비를 폐쇄하기로 결정

□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는 공급과잉을 촉진

-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경우 아시아의 공급과잉이 한층 심각해질 전망
 -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의 오랜 현안인 설비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지적

□ 알루미늄 업계는 사업재편을 통해 체질개혁

- 일본 국내 3위의 알루미늄 업체인 스미토모금속공업은 1위인 스카이의 10월에 합병할 예정인데 국내수요의 감소가 합병 이유
 - 합병으로 탄생되는 UACJ는 압연능력이 미국 알코아에 이어 세계 3위이나, 현재 수익환경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합병효과로 극복할 계획
- 일본의 알루미늄 업계는 자동차, 캔용 알루미늄 판이 수익 원천인데, 일본 국내 수요의 감소로 압연제품의 출하량이 1997년을 피크로 20% 정도 감소함에 따라 체질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
- 후루카와(古河)스카이와 스미토모는 합병 후 집중생산 등을 통해 양사의 경상이익 전체에 상당하는 약 150억 엔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일단은 국내 체질개혁에 집중하면서, 경쟁 지역인 아시아에서 중국 업체에 대항하는 데 여력을 쏟아 부을 계획
- 중국의 알루미늄 업계는 2015년에 캔용 알루미늄 판의 생산능력이 일본의 20배인 연간 23,000톤에 달할 전망이다,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에 대한 수출 공세가 두드러지고 있음

- 기술력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후루카와스카이는 태국의 신규공장을 신속히 가동하여 수요개발 측면에서 중국기업에 선수를 친다는 전략임
- 후루카와스카이가 단독으로 건설을 추진해 온 태국공장은 2014년에 가동예정으로 투자액은 500억 엔
- 연간 압연능력은 일본 국내수요의 10%정도에 상당하는 연간 18만 톤으로 매우 큼
- 동사는 현지 일본계 자동차업체 등에 고품질의 캔용 알루미늄 판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, 합병으로 고객층이 확대되어 투자금의 회수도 용이해질 것이라는 분석

□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생산 집약 효과는 연간 600억 엔

- 신일철주금도 인도와 태국에서 자동차용 강판 등의 생산거점 구축을 가속화
 - 2014년 3월 해외생산능력은 전년 대비 약 50% 증가한 1,400만 톤으로 비용면에서도 한국과 중국 업체에 대항할 수 있게 됨
 - 일본 국내 과잉설비를 처리함으로써 수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가동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
- 2015년 3월까지 일본 국내에서 가동이 중단되는 라인은 자동차용 강판 등 총 13개에 이름
 - 경쟁력 강화를 중시한 생산 집약화·가동율 제고 효과가 연간 600억 엔에 이를 전망

□ 섬유산업 부활의 교훈

- 2012년 10월에는 내수가 급감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업체 일신제강과 일본금속공업의 경영통합이 이루어졌는데, 향후에도 비철금속 분야에서 사업재편이 잇따를 전망
- 일본에서는 섬유와 시멘트 업계가 과잉설비문제를 극복한 바 있음
 - 국내생산이 1990년 180만 톤에서 2000년에 110만 톤으로 급감했던 시기, 도레이와 클라레 등이 합리화와 동시에 제품전략을 바꾸면서 고수익기업으로 부활
 - 도레이는 섬유기반의 소재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영역이 매우 넓어 아직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의료분야를 강화할 계획

- 일본의 화학과 철강 업체들은 사업재편 등을 통해 국내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고, 강점인 기술력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돌파구를 찾고 있음

□ 시사점

-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과잉설비문제를 안고 있는 소재산업은 장치산업의 성격을 가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으로 최적 생산설비 규모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음
 - 세계 경쟁 환경에 따라 설비증설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하고, 반대로 과잉설비 축소가 이루어지기도 함
- 과잉설비 감축을 위해 국내 업체간 협력·조정이 쉽지 않아 일본정부가 개입하여 설비투자 경쟁을 완화시키거나 과잉설비 감축을 실시한 예가 적지 않음
 - 결국 업체 스스로의 설비축소나 합병 등의 사업재편을 통해 과잉설비를 해소하고, 기술력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식의 체질개혁이 해법으로 제시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3.9.3/4)